

구원의 서정(序程)

홍성환 담임목사

※ 중심성경구절 (로마서 8장 29절~34절)

-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 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 생각의 밑그림 그리기

구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죄에 대해, 공의에 대해 기준이 매우 엄격하셔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의 표현대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이미 죄인이다. 이미 죽었다. 이미 사형언도를 받았다. 이미 마귀의 자녀다. 그러므로 인간의 양심이 인간의 구원을 좌우할 수 있는 기준은 결코 될 수 없다. 따라서 죄악 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무기력함과 회개의 단계가 구원의 선포 이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날 구원과 기쁨의 선포가 교회마다 넘쳐남으로 혹 죄의 영향과 그 깊이가 간과되지 않은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깊이 깨달으려면, 역설적으로 죄의 영향과 깊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과연 구원받은 우리는 과거에 처했던 엄청난 절망의 상황에 대해서 진실로 눈물과 탄식으로 회개한 일이 있는가? 철저하게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에 깊이 슬퍼하며 애통한 적이 있는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고 새생명을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모든 과정이 오직 은혜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조차 성령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구원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말해서는 희망이 없다.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무한하신 사랑과 공의와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I. 구원의 필요성

- 구원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다.
 - 성경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 이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요 3: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시 7:11~13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 하나님은 성품적으로(속성상) 죄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 마음에 분노를 느끼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 그리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지고, 활을 당겨 놓으신다는 것이다.
- 우리는 구원에 대해 배우기 전에, 우리의 죄와 죄인 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며 적극적이고 굉장히 긴박한 태도를 취하는 분이시다.
-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속에 있는 죄인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다.

가.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되어 있다.

엡 4:18 -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엡 2:1 -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 인간은 하나님의 ()의 대상이다.

엡 2:3 -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지배와 통제의 ()가 된다.

- 성경을 보면,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한다.
-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주인이 풀어주지 않으면 주인으로부터 스스로 놓일 수 없는 사람이다.
- 너희가 죄의 종이다라는 말은 평생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스스로 죄에서 놓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 어느 정도 죄와 싸워서 이길 법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죄 앞에서 철저히 무능한 종 철저히 죄의 노예요 종이라는 것이다.

⇒ 이것이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비참한 상태인 것이다.

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 수가 없다.

롬 8:7 -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히 9:27 -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 결론

인간은 구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전혀 없으셨다. 만일 하나님께 죄인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오직 진노하시고 공의에 따라서 죄를 심판하시고 형벌할 책임만 있으시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 하나님과 인간의 기본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노만 하셔야 할 책임만을 가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다.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Ⅱ.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하신 일

가. 성부 하나님

구원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예수 ()와 ()을 보내주셨다.

나. 성자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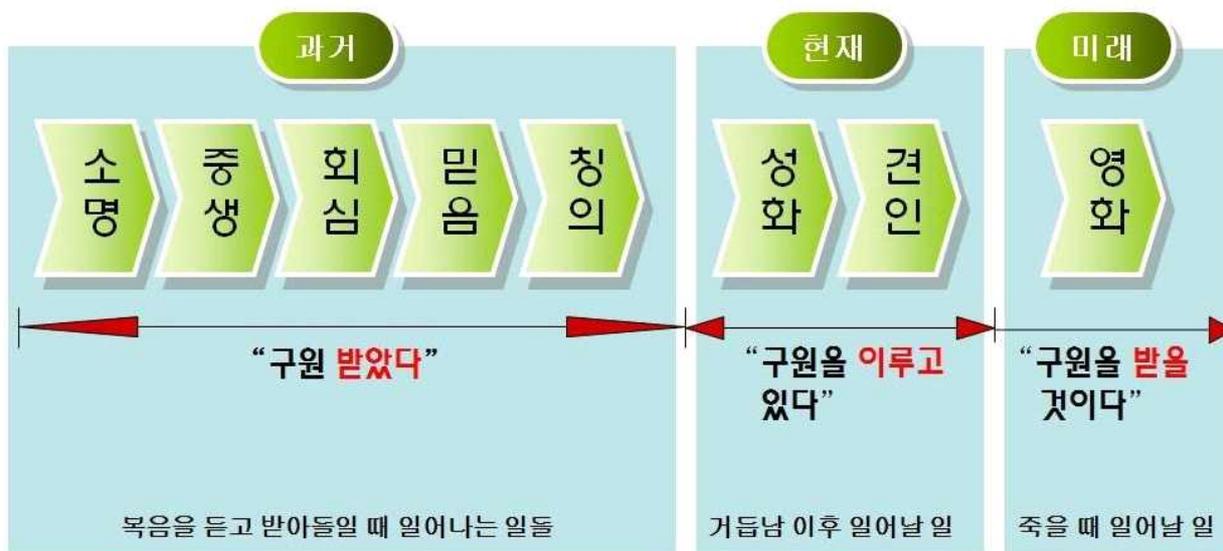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셨다. (구원의 길 여심)

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각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구원을 () 가신다. 결국 각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필수적이다.

Ⅲ. 구원의 서정

가. 구원의 과정들



주의: 이것은 시간적 순서라기 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로 이 모든 일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나. 구원의 서정(9가지) 및 구원의 시제(3가지)

1. 소명

성령의 구원 적용에 있어 제일 먼저 나타난 행위는 ()을 불러주심이라 할 수 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유하시는 은혜의 행위인 것이다.

2. 중생()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을 근본적으로 ()시키시는 것을 말한다.

3. 회심(turn)

회심이란 하나님께서 중생한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를 일으켜서, 믿고 회개하기 위해 ()이며, 그리스도께로 전환하는 믿음도 회심에 포함된다. 사실 회심은 중생한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으며, 엄격한 의미에서는 회심은 반복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생으로 나타난 변화가 인간 의식에 처음으로 표출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개는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